

새롭다! 즐겁다!

뉴질랜드 어학연수



광주일보가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(www.hannew.org.nz)와 공동으로 현지학생들과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.

특징 1 현지학교 매일 수업참여

기존 '해외과외형' 연수가 아닌,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연수기간 내내 정규수업을 함께 받으면서 영어실력을 키운다. 연수생의 어학수준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며 오후엔 별도 영어교육도 실시한다.

특징 2 학생 집에서 매일 홈스테이

연수생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현지 학생들의 집을 선별해 연수기간내내 편안하고 쾌적한생활을 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갖는다. 교사가 주 3회 기정을 방문해 학생의 생활상황도 체크한다.

특징 3 연수생 안전에 만전

홈스테이 전담 선생님이 있어 연수생들이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학생보호 시스템을 운영한다. 학교선생님과 함께 한뉴문화교류센터 교직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연수생들의 학교생활을 밀착 관리한다.

특징 4 연수비용 최소화! 국내 최저가!

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이번 연수는 광주일보가 지역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현지 연수기관과 직접 교류로 연수의 품격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 했다.

| 연수기간 | 2012년 1월 26일 ~ 2월 23일
| 연수학교 | Howick Intermediate School 등 6개교
| 연수대상 | 초등 4~6학년, 중학생 1~3학년

| 연수인원 | 선착순 30명
| 신청마감 | 2011년 12월 27일
| 문의 | 062-220-0555 · 018-693-6604

| 주 최 | 광주일보사

| 주 관 | 한뉴문화교류센터